

Nikkei 한국 제조업 PMI[®]는

12월 경기, 여전히 약세

주요 내용:

- 국내외 매출 하락이 생산 약세 견인
- 수요 부진으로 판매가 하락
- 경기 신뢰도, 6개월래 최고치까지 반등

설문 조사 데이터 취합 기간 (12월 5일-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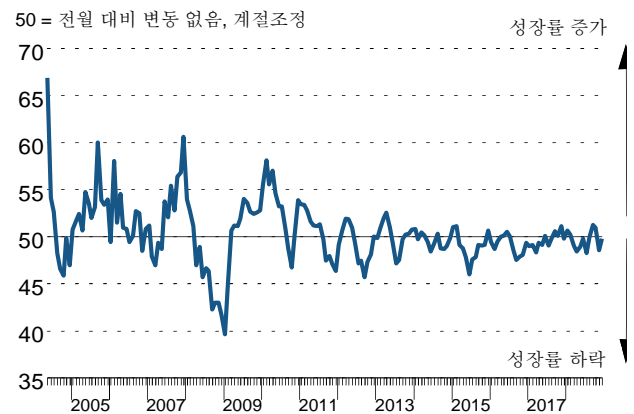
한국 제조업 경기는 2개월 연속 약세를 기록하며 2018년 4분기를 마감했다. 경기 하강을 견인한 것은 국내외 매출 감소로, 기업들은 생산, 고용 및 재고를 줄였다. 또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가를 인하했다. 단, 구매 비용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경기신뢰도는 6개월래 최고치까지 상승했다.

5개의 핵심 지수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한 자리수 제조업 실적을 산정한 헤드라인 Nikkei 한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South Korea Manufacturing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12월, 50.0 변동없음 기준치를 여전히 하회하며 경기 위축 경향을 이어갔다. 단, 11월의 48.6보다는 상승한 49.8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제조업 경기 악화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2월 수주 물량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판매 약세는 국내외 시장의 기저 수요 조건이 약화된 때문이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출 판매 하락은 유럽과 중국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단, 감소율은 국내외 전반적으로 둔화되었으며, 해외 시장의 판매 감소 속도는 11월 대비 둔화되어, 감소율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수요 압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의 12월 생산은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 흐름은 11월과 동일하나, 12월 수요 감소율은 11월 대비 다소 둔화되었다. 판매 감소와 생산 감소가 맞물리면서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 인원을 감축했다. 단, 고용 감소율은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감소율 둔화는 일부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가 인원을 고용한 때문이다.

Nikkei 한국 제조업 PMI[®]는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업체의 12월 생산 능력 압력은 완화되었는데, 이는 기업들이 잔존 수주를 처리해 나갔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기존 수주 물량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12월 완제품 재고는 감소했다. 재고 감소율은 전반적으로 완만했으나, 7월 이후를 기준으로 할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기업들은 판매가를 인하했다. 이는 경쟁 압력으로 인해 할인 판매를 결정했다는 응답에서도 잘 드러난다. 단, 판매가 하락율은 전체적으로 경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수입 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영업 비용 증가 속도도 하락했다. 단, 인건비 및 기타 원자재로 인해 전체 원가는 상승했다.

향후 경기 예측에 대한 기업들의 미래 생산 전망 지수는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한국 경제의 경기 개선, 수요 진작 전망이 내년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요에 대한 낙관론으로 기업의 구매 활동은 3개월래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의견:

한국 제조업 PMI 조사 결과에 대해, **조 헤이스(Joe Hayes)** IHS Markit 이코노미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 제조업 설문 조사 결과는 국내의 기저 경기 약세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수주 물량 감소는 여전히 이로 인해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이 부진한 상태이다. 연말의 유럽과 중국에 대한 판매가 감소하면서, 수출 시장 역시 약세에 머물러 있다.

“수요 압력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 및 고객 유치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 단, 다행히도, 구매 비용 상승률은 둔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제조업 경기 신뢰도는 상승하여 6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응답자들은 건실한 수주 가능성 및 신제품 출시 계획 등으로, 내년 한국 경제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상 -

Nikkei 한국 제조업 PMI[®]는 NIKKEI의 후원으로 발간됩니다

Nikkei는 일간 신문 발행을 주활동으로 하는 언론 기관이다. 대표적인 일간지인 The Nikkei의 구독자는 약 2백 50만 명에 이르며, 온라인, 방송 및 잡지 등을 통해 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876년에 추가가 부카 심포(Chugai Bukka Shimpō - 국내외 물가 뉴스)라는 이름으로 창간된 The Nikkei는 공정 중립 보도 기조를 유지하며 양질의 정보를 보도해 왔다. The Nikkei는 국내외에서 믿을 수 있는 매체로 널리 알려져 있다.

Nikkei Inc.는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독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켜 왔으며, 그 중심에 독자 수가 약 2백 50만 명에 달하는 The Nikkei가 있다. 그 밖에, Nikkei의 프리미엄 콘텐츠와 첨단 디지털 매체 활용으로 Nikkei Inc.는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2010년에 처음 창간된 The Nikkei 온라인 판 유료 구독자는 50만 명을 넘어, 온라인 신문 발행사 중 세계 최고의 유료서비스 이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창간 후 8년이 지난 후부터, The Nikkei 온라인 판은 뉴스 보도를 넘어 독자들의 비즈니스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장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영어 뉴스 서비스인 The Nikkei Asian Review를 창간하여, 온라인 및 주간 오프라인 잡지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 이듬 해에는 아시아 지역 편집 본부를 태국 방콕에 개소하여 아시아 경제 뉴스에 깊이를 더했다. 또한, 일본 외 아시아 국가에 파견된 기자들의 수를 배가시켰다. 또, 2014년에는 지역 내에 Nikkei의 브랜드 홍보를 담당하는 Nikkei Group Asia Pte.를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Nikkei는 아시아의 선도적인 언론이 되겠다는 목표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

<http://www.nikkei.co.jp/nikkeiinfo/en/>

NIKKEI ASIAN REVIEW <http://asia.nikkei.com/>

아시아 경제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명쾌한 보도,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전문지

아시아 전 지역에 어떤 경제지보다 많은 수의 기자와 전문가들을 보유한 Nikkei Asian Review만의 가장 정확하고 명쾌한 보도를 만날 수 있다.

Nikkei Asian Review 구독을 통해 최신 뉴스와 분석, 경제 흐름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으며, 모든 기사 및 내용은 인쇄 매체와 온라인을 통해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만날 수 있다.



아시아 300:

11개국과 아시아 지역 및 11개국의 300개 이상의 선도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력 제공. Nikkei Asian Review는 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와 재무 정보에 대한 대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기업 뉴스를 알리는 세계 최고의 허브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업데이트:

일본 경기 및 새소식에 대한 업데이트



관점:

최고의 칼럼리스트들이 작성한 "Tea Leaves" 칼럼 등 아시아에 대한 전 세계 우수 전문가들의 관점을 제공



정치 및 경제:

재정 정책 및 통화 정책, 국제 뉴스 등



마켓:

업종별 세부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제공, 지역 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분야의 최신 뉴스 파악



영상:

본 기사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설명 및 최고 경영진 인터뷰 듣기



프린트 에디션:

Nikkei Asian Review의 주간 최고 콘텐츠를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받아보기

세부 자료 요청:

IHS Markit (PMI 및 의견)

조 헤이스 (Joe Hayes), 이코노미스트
전화: +44 1491 461 006
이메일: joseph.hayes@ihsmarkit.com

메린 차 (Jerrine Chia), 홍보부
전화: +65 6922 4239
이메일: jerrine.chia@ihsmarkit.com

버나드 오 (Bernard Aw), 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전화: +65 6922 4226
이메일: bernard.aw@ihsmarkit.com

Nikkei inc. (Nikkei 관련 문의)

켄 치바 (Ken Chiba), Deputy General Manager, 홍보부
아츠시 쿠보타 (Atsushi Kubota), Manager, 홍보부
전화: +81 3 6256 7115
이메일: koho@nex.nikkei.co.jp

편집자 참고 사항:

Nikkei 구매관리자지수(PMI[®])는 매월 업계 내 400개 이상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에게 보내는 설문 조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집계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설문 참가자는 한국 GDP 대한 산업적 기여도를 고려하되, 지리적인 위치 및 표준산업분류(SIC,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그룹에 따라 선정된다. 제조업은 1차 금속, 화학 수지, 전기 및 광학, 식음료, 기계 공학, 섬유 및 의류, 목재 및 제지, 운송 등 크게 8개 부문으로 나뉜다.

설문 조사 응답에는 매월 중순에 집계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지난 달과 비교한 이번 달의 변화(있는 경우)가 반영되어 있다. 각 지표에 대해 본 '보고서'에는 각 응답의 백분율, 증가/개선 응답 수와 감소/악화 응답 수의 순증감 및 '개별'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수는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들의 합계와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들의 반을 더한 값이다. 개별 지수는 선행 지수의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변화의 방향을 요약적으로 보여준다. 지수 수치가 50.0을 초과하면 해당 변수의 전반적인 증가를, 50.0 미만이면 전반적인 감소를 시사한다.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가지 개별 지수에 가중치를 두어 산정한 종합 지수다. 가중치 내역은 신규 주문 (0.3), 생산 (0.25), 고용 (0.2), 공급업체의 배송 시간 (0.15), 구매 품목 재고 (0.1)이며, 공급업체 배송 시간 지수는 역으로 전환하여 다른 지수와 비교 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IHS Markit은 보고서 첫 발행 이후 근원 조사 데이터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 단, 계절 조정 요인이 계절 조정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계절 조정 지수는 적절하게 수정될 수 있다. 근원 (조정하지 않은) 수치, 계절 조정된 최초의 데이터 시리즈 및 이후 수정된 데이터 등 모든 과거 데이터는 IHS Markit 구독자들에게 공개된다. 문의처 economics@ihsmarkit.com.

IHS Markit에 대하여 (www.ihsmarkit.com)

IHS Markit(나스닥: INFO)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및 시장에 대한 중대한 정보, 분석 결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양한 사업체와 금융 업계 및 정부를 고객으로 하여 차세대 정보, 분석 결과,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 심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신있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IHS Markit은 전 세계에 50,000여 개의 기업 및 정부를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이중 포춘 글로벌 500에 선정되었거나 주요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80%를 차지한다.

IHS Markit은 IHS Markit Ltd 및/또는 그 계열사의 등록 상표이다. 모든 타 기업 및 상품명도 해당 기업 및 상품의 등록 상표일 수 있다. © 2018 IHS Markit Ltd. All rights reserved.

PMI에 대하여

현재 40개 이상의 국가 및 유료 존을 비롯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인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 받는 비즈니스 설문 조사로, 중앙은행, 금융시장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자들은 가장 최신의 정확한 지표, 차별화된 경제 동향 지표를 파악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PMI[®]를 활용해 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https://ihsmarkit.com/products/pmi.html> 참조 바람.

Nikkei 한국 제조업 PMI[®]에 대한 본 정보의 지적 재산권 또는 라이선스는 IHS Markit이 소유한다. IHS Markit의 사전 동의 없이 이 보고서 데이터를 무단 복제, 배포, 전달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IHS Markit은 본 보고서의 콘텐츠 또는 정보("데이터")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데이터의 오류, 부정확성, 누락 또는 지연에 대해서도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이 데이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특정 손해나, 부수 간접적 또는 결과적인 손해에 대해, IHS Markit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Purchasing Managers' Index™와 PMI[®]는 Markit Economics Limited가 소유한 상표이거나 Markit Economics Limited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Nikkei는 허가를 받아 상기 상표를 사용한다. IHS Markit은 IHS Markit Ltd 및/또는 그 계열사의 등록 상표이다.

IHS Markit의 뉴스 보도 자료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 joanna.vickers@ihsmarkit.com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해 주십시오](#).